

‘해남미소’ 오프라인 매장 열고 제2의 도약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작년 매출 39억 꾸준한 성장 마산면 식품특화단지에서 매장 입점 업체 상품 전시·판매

해남군의 직영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가 명실상부한 종합유통회사로 도약을 모색한다.

그 동안 인터넷 판매 중심의 판매전략에서 소비자들 직접 해남농수산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미소는 지난 30일 마산면 식품특화단지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선포식 및 오프라인 매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해남미소는 지난 6월 본사를 해남읍 군청 내에서 마산면 식품특화단지로 이전했다.

해남미소 오프라인 매장은 613.55㎡ 규모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 상품의 전



지난 30일 해남미소 오프라인 매장 개장식 후 명현관(맨 왼쪽) 해남군수 등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시·판매장과 교육장, 저온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관광객 등이 쇼핑몰 입점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식품특화단지 내 업체들과 연계해 우수 해남 농수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민선 7기 주요 농정 방침이 체계적 유통시스템 구축에 있는 만큼 푸드플랜 사업은 물론 로컬푸드 활성화와 유통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품목별 대표조직과 연합

한 종합 유통회사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007년 7월 출범한 해남미소는 2011년 군 직영 체제 전환 후 6억원의 매출이 지난해 말 기준 39억여원까지 늘어나면서 6배 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 증가와 함께 56개에 불과하던 입점 업체수도 244개로 초창기 쌀 판매 중심이던 품목도 절임배추와 가공식품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회원수 7만2000여 명이 넘는 지역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e마케팅 페어’를 6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지자체 온라인 유통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온라인 쇼핑은 2017년 67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모바일 쇼핑은 매년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마케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해남미소 비전 선포를 계기로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성인문해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시화전에 참가해 글씨를 뽐내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90개 평생교육 3000여명 참여

완도군의 평생교육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성인문해교육을 비롯한 90개의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에 군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평생 프로그램은 성악아카데미와 생활 도자기 공예, 부모가 만들어주는 내 아이 그림책 등 놀이배움 강좌를 비롯해 건강관리와 약용식물 관리사 등이다.

전남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등에도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군은 상반기 인기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단기 고소득 입산물 버섯대학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부터 평생교육원 운영을 시작해 10월 여성 직업 훈련, 11월 자기계발 자격증 과정과 명사 초청 강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평생학습 축제를 열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 간척지 바닷물 유입

농민·농어촌공사 갈등

해남의 한 간척지 눈에 바닷물이 유입돼 책임소재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배수관리를 제대로 못 한 농어촌공사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31일 해남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께 송지면 강남마을 앞 간척지 11필지 2.3ha로 바닷물이 유입돼 벼가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는 등 염해(鹽害)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배수관에 스티로폼 등 이물질이 끼면서 그 틈으로 바닷물이 범람해 간척지 빛눈을 덮었다”면서 “이는 수문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관리부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공사가 수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큰 피해가 났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바닷물 범람과 침수는 자연적 재해이며 폭염 속에 염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며 보상할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웰빙 국민 간식’ 해남 햇고구마 출하

신품종 재배 두 달 일찍 수확

여름철 웰빙 국민 간식 해남고구마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

지난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수확을 시작한 햇고구마는 해남1호 품종과 조기 재배용 밤고구마 진율미로 일반 고구마보다 두 달가량 일찍 선보였다.

특히 진율미는 2016년 국내 육종돼 올해 처음 출하되는 밤고구마 품종으로 맛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밤고구마 시장을 공략할 차세대 주자로 관심을 끌고 있다.

조기재배 다수확 품종으로 10a당 2.8t으로 수확량이 많다. 덩굴쪄김병 등 병해에도 강해 재배 농가 선호도가 높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적응 실증 시험에 이어 올해 증식포 1ha를 비롯한 총 6ha 면적에 진율미 고구마를 재배해 본격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율미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 구입문의는 해남고구마 생산자 협회 사이트(shop.haenamgoguma.com)로 접속하면 된다.

해남지역 고구마 재배면적은 2017년 기준 1647ha로 전국 재배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계르마농이 다량 함유된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고구마는 지리적표시농산물 42호로 등록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식감 일품, 진도 쫄쫄이 미역 드셔 보세요”

조도면 관매도 채취 한창

지난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산모미역’으로 잘 알려진 쫄쫄이 미역(돌미역·사진)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류가 센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벼락바위 앞바다에서는 매년 이맘때 쫄쫄이 미역을 뜯는 마을 공동작업이 이뤄진다.

어민들은 1년을 기다려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클 때 한 달간 이 미역을 채취한다.

쫄쫄이 미역은 주로 거친 바다 한가운데 바위섬에 붙어 자라는데 주민들은 미끄러운 바위에 뛰어올라 파도와 싸우며 낚으로 미역을 본다.

조류가 센 곳에서 자란 쫄쫄이 미역은 돌미역 계통으로 부드러우면서 오독오독한 식감이 일품이다.

주민들은 파도가 센 곳에서 지렁이까지 있어서 미역 잎사귀가 납뽀하게 자란다고 해서 쫄쫄이 미역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쫄쫄이 미역은 최고의 상품으로 한 가득에 2만원을 호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청 역도팀 연맹회장배 금1·은3

완도군은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이 ‘2018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최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2018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일반부 남자 +105kg급에 출전한 이양재 선수는 인상에서 180kg을 들어 은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용상에서 230kg으로 금메달을 함께 410kg으로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남자 62kg에 출전한 이상혁 선수는 인상에서 119kg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이양재 선수는 올해 들어 금 5개, 은 4개, 동 1개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창단한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불과 3년여 만에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허진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감독은 “이번 대회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10월 제 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진도읍 포원리에 난 단지 조성

진도군은 배양과 판매, 전시가 한 공간에서 가능한 난(蘭)단지가 최근 진도읍 포구리 일원 512㎡ 부지에 조성 완료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난 단지는 1억6000여 만원을 투입해 온도와 습도 등이 자동 조절되는 최첨단 시설로 꾸며졌다.

400여 점의 난이 상시 전시되고 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난 재배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동진 군수와 전남 난문화협회 회원,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 단지 개소식도 가졌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농업에도 불고 있는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빠르게 받아들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작목 재배가 필요하다”며 “춘란 산업은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과 함께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

